

#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미래형 산업 허브 '각광'

### 입주율 100%...접근성·임대료 '호응' 이차전지·첨단소재 중심 입주 수요 ↑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사진)가 입주율 100%를 달성하며 미래형 산업 허브로 각광 받고 있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익산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해당 센터는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광양항 부두, 세풍·울촌산단과도 가까워 물류 및 교통 측면에서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33㎡당 8천970원의 저렴한 임대료는 타 지자체 유사 시설 대비 경쟁력이 높아 지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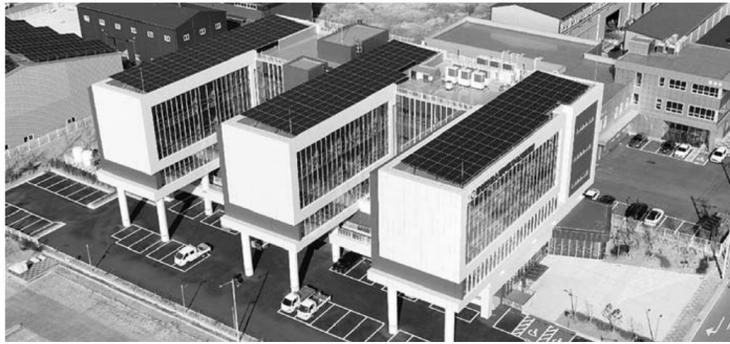
현재 센터에는 나트륨 이온전지를 개발하는

(주)에버인더스, 배터리 재제조 및 양·음극재를 생산하는 (주)에이비알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5개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기반이 탄탄히 구축돼 있다.

이밖에도 레이저레딩, 자동화 장비,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중소·벤처기업 23개사가 입주해 있어 향후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센터에는 지역 청년 인재와 첨단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도 구축돼 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센터에서 운영 중인 첨단소재 광양캠퍼스는 지역 청년 인재와 첨단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식학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



어 입주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의실과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갖추고 있다.

향후 라운지와 휴게 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해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입주 만족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광양시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양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벤처지원단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해 초기 창업기업은 물론 성장 단계의 중소기업이 지금 조달과 기술 솔루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현성 광양시 신산업과장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기업 입주 공간을 넘어 기업이 성장하고 교류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식학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성 군수, 군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김 브랜드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김 브랜드 개발 본격 착수

### 郡 용역 착수보고회...네이밍 공모전

장흥군이 친환경 장흥김만의 브랜드 개발에 본격 나섰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김 브랜드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김 브랜드화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청정해역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장흥김'의 품질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독자적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다. 보고회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용역수행사, 친환경 김 1·2차 가공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주)다스디자인이 과업개요 및 추진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친환경 장흥김의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 개발, 포장재 시안 등 과업 전반에 대한 방향이 공유됐다. 향후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다각적 네이밍 아이디어 수렴 및 소비자 인식조사, 포장재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김은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체계적인 브랜드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장흥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경쟁력 있는 수산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

## 정철원 담양군수 "여름철 재난 대비 당부"



### 긴급 대책회의...인명피해 '제로' 목표 재난취약지역 점검·24시간 대응 태세

담양군은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대응체계를 다시 확인하고, 부서 간 협업과 현

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정광선 부군수, 김병규 행정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등 35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부서와 읍·면은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함께 참여했다. <사진>

회의에서는 ▲기상청장마 전망 및 강수예보 공유 ▲실과별 사전점검 현황 및 대응계획 보고 ▲6·5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 지시사항 시달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및 인명피해 최

소화 방안 ▲비상 상황 대응체계 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철원 군수는 "올해는 강수량이 많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사고는 대부분 징후가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재난취약지역 점검과 실시간 상황 공유, 대피 지원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배수로·하천 정비 ▲산사태 및 노후 시설물 점검 ▲폭우 대비 시설물 보강 ▲SNS 및 마을방송을 통한 실시간 주민 안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운영 등 구체적인 현장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을 독려했다.

특히 부서 간 협업 체계와 유관기관 공조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합동 훈련과 연립방재정비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철원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항상 경각심을 갖고 군의 대응 태세를 재점검해 군민 불안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곡성물, 제철맛이 멜론 30% 할인 특별전

### 24일까지...리뷰 이벤트도

곡성군은 15일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곡성멜론 제철맛이 최대 30%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곡성 멜론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곡성멜론(주), 곡성농협, 대신영

농조합법인, 로와농장 4개 업체가 참여해 고품질 멜론을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멜론은 심진강변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 큰 일교차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한 농콜에 한 과만 재배하는 원칙을 지켜 영양분을 집중시키며, 비파괴 당도 선별을 통해 13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멜론을 출하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곡성멜론은 202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에서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인증을 국내 멜론 산지 최초로 획득하며 품질과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곡성물은 오는 30일까지 '리뷰 쓰면~ 할인 쿠폰' 이벤트를 동시 진행 중이다.

구매 후 텍스트 리뷰 작성 시 500원, 포도 리뷰 작성 시 1천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곡성물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곡성의 특산물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여수시 "농촌 빈집 대신 팔아드립니다"

### 빈집은행 사업 건당 활동비 50만원

여수시는 15일 "농촌지역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빈집은행'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빈집은행'은 농촌의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가 거래 희망 동의서를 제출하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건당 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앞서 여수시는 최근 빈집 소유자 전원에게 거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빈집은 활용 가능성이 높아 구입 문의가 많았다"며 "그간 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 답답했는데 빈집은행을 통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소유자와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1천800여 호의 빈집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오는 7월30일까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 보성, '열대거세미나방' 성충 발견...방제 당부

### 옥수수 재배 농가 피해 우려

보성군이 최근 열대거세미나방(사진) 성충이 발견됨에 따라 옥수수 재배 농가에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비래 해충으로, 지난 4월21일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보성군에서는 지난달 28일 첫 성충이 발견됐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옥수수와 수수, 벼 등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 및 수확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유발한다.

보성군은 옥수수 주산지인 득량면과 회천면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 5월부부터 매주 1회 정기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방제는 유충이 활동하는 야간 시간대를 고려



해 해뜨기 전이나 해지고 난 이후에 옥수수 전체에 약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효과적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열대거세미나방은 초기에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며 "농가에서는 옥수수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세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 열대거세미나방 선제 대응을 위해 2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26농가, 126.5ha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공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해충 밀집 지역의 맞춤형 방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 장성군,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힘 모은다

### 수출 활성화 간담회...지원 정책 등 논의

장성군은 "최근 지역 농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 실적을 보유한 지역 내 농식품 업체와 수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수출 사례 발표를 맡은 장현순 네시피 F&B 대표는 "시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한 것이 해외 진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유동영 '골든힐' 과장의 농식품 수출 마케팅 전략 특강과 이상섭 'J&S글로벌한상연구

원' 원장의 '아세안 농식품 한상 네트워크 활용 방안'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과 대책 마련,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간담회가 군의 농식품 수출 역량을 결집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장성의 우수 먹거리가 세계 무대에서 공인된 위치에 오르는 그날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수출 물류비(포장재, 내륙운임비 등),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기반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